

## 조선 말기 紗·羅에 관한 研究

이 은 진\* · 조 효 숙\*\*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n *Sa*(紗) and *Ra*(羅)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Eun-Jin Lee\* · Hyo-Sook Cho\*\*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 Won University\*\*

(2003. 10. 6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heoretical basis to name *Sa*(紗) and *Ra*(羅) remains proper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me, usage, value, length and width of *Sa*(紗) and *Ra*(羅) recorded on documents made at the end period of *Joseon*. The features of *Sa*(紗) and *Ra*(羅)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are as follows.

1. The kinds of *Sa*(紗) are about 80, those of *Ra*(羅) are about 12, and those of *Sa*(紗) are significantly more than those of *Ra*(羅). In regard to the aspect of patterns, there were about 20 types of patterns in the case of *Sa*(紗), but no specific pattern for *Ra*(羅).

2. Some newly revealed patterns in the case of *Sa*(紗) are as follows. *Baek-bok-mun*(百蝠紋) was a pattern full of 'bats(박쥐[蝠])', and *Baek-jeop-mun*(百蝶紋) was a pattern full of 'butterflies(나비[蝶])'. *Jeop-mun*(접문) was classified into 'butterfly patterns(나비문[蝶紋])' and 'traditional window flame patterns(창살문[櫺紋])'.

3. When considering the usages of *Sa*(紗) and *Ra*(羅), *Sa*(紗) was used for various detailed purposes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patterns, but *Ra*(羅) was mostly used for underwear. The most commonly used *Sa*(紗) was the *Gab-sa* type(甲紗類). On the contrary, the *Go-sa* type(庫紗類) was significantly less used than the *Gab-sa* type(庫紗類). However, it must have been of relatively high quality *Sa*(紗), shown by the fact that it was used for outer garments. In addition, the *Gung-sa* type(宮紗類) was the best quality *Sa*(紗), shown by the fact that it was used for court dress and official uniforms in the royal court.

4. *Sa*(紗) and *Ra*(羅) whose features have been examined are *Gapsa*(甲紗), *Sun-in*(純仁), *Gosa*(庫紗), *Gwansa*(官紗), *Jusa*(走紗), *Eunjosa*(은조사), *Gwangsa*(廣紗), *Waesa*(倭紗), *Dorisa*(도리사), *Gong-yangsa*(공양사), *Rasa*(羅紗), *Danghangra*(唐亢羅), *Yanghangra*(洋亢羅), *Yunjura*(운주라), *Eunra*(銀羅), *Jeohangra*(저항라), *Chura*(秋羅).

5. Regarding the values of *Sa*(紗) and *Ra*(羅), they were high quality textures and its length and width of 1 *Pil*(疋), a roll of cloth, were not subdivided in detail such as in the case of plain weaved silks(平絹).

Key words: the Joseon Period(조선), Gauze(익직), *Sa*(사), *Ra*(라), *Bal-gi*(불기).

## I. 서론

紗·羅는 조선 말기에 빈번히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한복용 직물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몇 종류 외에는 조직이나 문양 등에 따른 정확한 특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紗·羅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민길자의 羅·紗 조직에 대한 연구<sup>1)</sup>와 심연옥의紗·羅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sup>2)</sup>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紗·羅의 조직적 특성과 제작기술에 중점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紗·羅의 종류별 특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시기도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를 전반적으로 논하였기 때문에 조선 말기의紗·羅 유물에 타당한 명칭을 부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조선 말기의 문헌자료에 기록된紗·羅의 명칭·용도·길이·폭·가치 등을 분석하여 특성을 규명함으로써紗·羅 유물에 우리 문헌에 근거를 둔 타당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19C 말에서 20C 초까지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의복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의디불기』<sup>3)</sup>를 통하여紗·羅의 명칭과 용도를 분석하였으며, 국가재정 전반을 담당하던 度支部에서 조선 말기 왕실과 각 관청, 각 지방의 감영과 부·군·현 등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정리한 『度支準折』<sup>4)</sup>을 통하여 1疋의 길이·폭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1915년에 간행한 『朝鮮彙報』를

통하여紗·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당시 8년 간 수집한 직물의 종류에 대한 기록이 있는 『朝鮮彙報』는 한일합병 이후의 자료이지만 본 연구의 참고문헌으로 활용한 이유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통하여 조선왕조가 정치적으로는 멸망하였으나, 조선왕조의 의생활 관습, 특히 전통복식 및 직물의 사용은 합병조약 이후에도 순종 서거 이전까지 일정기간 지속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II.紗·羅의 개념

紗와 羅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교차되도록 직조한 撚組織의 직물을 말한다. 撚組織의 직물은 경사가 교차되면 그 부분에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어 경사가 평행하게 직조된 부분보다 표면투공율이 높고 직물 물성이 얇고 가볍다.

우리나라 전통 撚織物은 한 조로 교차된 경사의 울 수에 따라 4經絞·3經絞·2經絞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經絞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되었고, 3經絞는 고려시대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2經絞는 고려 말기 유물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면 撚織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4經絞는 羅로, 2經絞는紗로 호칭되며, 3經絞는 제작기술 면에서는 2經絞와 유사하나 외관 면에서는紗보다 투공율이 적어 덜 비쳐 보여 羅와 유사해 보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선행연구자들은 羅로 분류하였다<sup>5)</sup>.

羅는 삼국시대부터 白羅·紫羅·絳羅·緋羅 등 다양한 색상으로 사용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금제에는 罽羅·錦羅·野草羅·總羅·越羅·布紡羅 등 각종 羅의 금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매우 유행하였다<sup>6)</sup>. 고려시대의 『高麗圖經』에는 白羅·紫羅·絳羅·靑羅 등 각 색의 羅와 紫文羅·紅文羅 등 무늬 있는 羅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羅는 紫羅公服<sup>7)</sup>과 紫文羅袍·紫羅窄衣·紫文羅窄衣<sup>8)</sup> 등의 군복뿐만 아니라 皂羅蒙首<sup>9)</sup>, 文羅巾·文羅頭巾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sup>10)</sup>. 또 『高麗史』에는 彩羅·黃羅가 幡에, 金羅가 가사에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당시 고려에서 宋으로 보낸 직물류 중에 色羅·生羅 등이 있다<sup>11)</sup>. 이러한 여러 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고려시대의 羅는 衣料는 물론 교역품으로 사용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이전 시대의 다양했던 羅는 급격히 줄어 향라·올라·숙라·추라 정도만 남고,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조직이 단순한 紗가 차지하게 되어 紗와 羅의 사용 추세가 현저하게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羅는 향라였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羅로 고려시대까지의 羅와는 다른 조직, 즉 2經絞의 紗織과 平織을 교대로 하여 위사 방향으로 줄이 표출되는 撚組織의 직물이었다.

紗의 경우는 통일신라시대의 문헌에 馬騎에 사용된 직물 혹은 六頭品女의 관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록 정도만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기록에도 관모에 사용되는 부紗나 烏紗, 宋에 보낸 幘頭紗·帽子紗, 元에 보낸 紫紗·紅紗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sup>12)</sup>. 또한 관영공장의 전문 직조공인 중에도 羅匠은 있으나 紗匠은 없는 것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까지는 소박한 직물로 의복 등에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sup>13)</sup>.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기』, 『度支準折』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 의하면 의복에 사용된 紗의 종류가 80여 종 이상이나 되어 羅보다 훨씬 중요한 직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紗의 조직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漢·唐代的 유물 분류에 의하면 중국에서 고대 및 중세의 紗의 조직은 경·위사가 가늘고 성글게 짜여

진 平織으로서, 2經絞의 撚組織은 아니었다<sup>14)</sup>. 그러나 宋代부터는 紗의 호칭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여 일부 사람들은 平織으로 성글게 짠 직물 이외에도 두 개의 경사가 한 조가 되어 교차된 2經絞의 撚組織 직물도 紗로 호칭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예로 平織 바탕에 무늬 부분만 두 개의 경사를 교차하여 實地紗로, 두 개의 경사가 교차되는 바탕에 무늬 부분은 平織으로 하여 暗花紗로 불렀던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明·清代에 더욱 보편화되었다고 한다<sup>15)</sup>.

이처럼 紗 조직 명칭의 혼돈은 이전에는 없었던 2經絞가 생겨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두 개의 경사가 한 조가 되어 교차된 것이 육안으로 언뜻 보기에는 마치 한 올의 굵은 경사로 이루어진 平織처럼 보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혼돈의 과정에서 고대 平織의 紗와 함께 2經絞도 紗로 호칭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현재 紗織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으로 고려 말기부터 2經絞의 撚組織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紗가 이러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고대 平織이었던 紗의 흔적이 조선시대까지도 남아서 실제 조직은 平織인데도 ‘紗’라는 글자를 붙인 官紗·縐紗 등이 존재하였다.

### Ⅲ. 조선 말기 紗·羅의 명칭과 용도

#### 1. 紗

##### 1) 紗의 종류와 명칭

『의디불기』와 『度支準折』에 기록된 紗의 종류는 80여 종이나 되어 조선 말기 직물사에서 紗의 중요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 紗 중 빈도수가 높게 활용되고 있는 종류들을 그룹지어 보면 크게 사·문사·갑사·생수갑사·고사·관사·저우사로 구분된다. 그 외에는 공양사·광사·광수사·공사·라사·서양사·양사·은조사·자미사 등이 있다.

이들은 다시 정련과 문양의 유무에 따라 20여 종으로 세분화된다. 이들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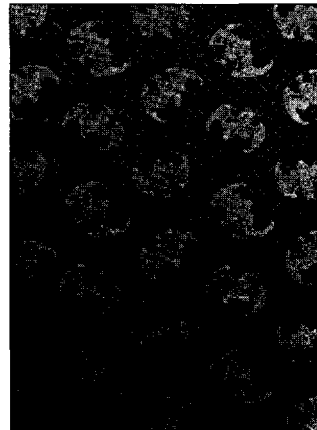
문·동물문·자연문·길상문·기하학문·복합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문은 桃榴紋·梅蘭紋, 동물문은 小龍紋, 자연문은 雲紋, 길상문은 壽福紋·如意紋·七寶紋, 기하학문은 鱗紋·능형문이 있다. 또 식물문·동물문·자연문·길상문·기하학문 등을 2종류 이상 혼용한 복합문에는 壽樑紋/壽蝶紋·鱗桃榴紋·鱗樑紋(鱗接紋)/鱗蝶紋·鱗花紋·百蝠紋·百蝶紋·樑紋/蝶紋·雲鶴紋·雲鶴龍鳳紋·七寶小龍紋·花樑紋/花蝶紋·花鶴紋 등이 있다.

## 2) 紗의 문양

紗에 사용된 문양들 중 본 논문에서 새로이 규명된 대표적인 종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복문은 『의덕불기』에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글자만으로는 그 문양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 석주선은 ‘백복문갑사’가 ‘百福 문양이 있는 갑사’라고 하여 백복문을 ‘百字’와 ‘福字’가 있는 문양으로 설명하였다<sup>16)</sup>. 그러나 ‘百字’와 ‘福字’만으로 이루어진 유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비하여 『의덕불기』의 기록에는 백복문사·백복문갑사·백복문생수갑사 등이 치마·동다리·창의·철릭·군복 등으로 20건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백복문을 ‘百福紋’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중국 清代에는 <그림 1>과 같이 ‘박쥐[蝙蝠]가 가득 차 있는 문양’을 ‘百蝠’이라고 명명하였으며<sup>17)</sup>, 우리나라에서도 17세기 중엽 이후 박쥐문이 淸으로부터 전래되어<sup>18)</sup>, 長壽·福·多男 등 길상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급속도로 전파되어 19세기-20세기 초에는 전성을 이루었다<sup>19)</sup>. 이처럼 조선 말기에 박쥐문이 유행하여 유물에는 비교적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나 문헌상에는 그 문양을 지칭하는 명칭이 없는 것을 볼 때 『의덕불기』에 기록된 백복문은 ‘百蝠紋’ 즉 ‘박쥐[蝙蝠]가 가득 차 있는 문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백접문도 『의덕불기』에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글자만으로는 그 문양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 그런데 석주선은 백접문단을 ‘百蝶’의 문양으로 된 겨울 옷감이라고 하였으며<sup>20)</sup>, 중국 清代 자수품 중에 <그림 2>와 같이 ‘품종이 다른 나비가 100쌍이 있는 것’을 ‘百蝶繡’라고 한 것으로 보아<sup>21)</sup> 백접문은 ‘百蝶紋’ 즉 ‘나비가 가득 찬 문양’이었을 것이다.



<그림 1> 百蝠

출처: 『中國歷代織染繡圖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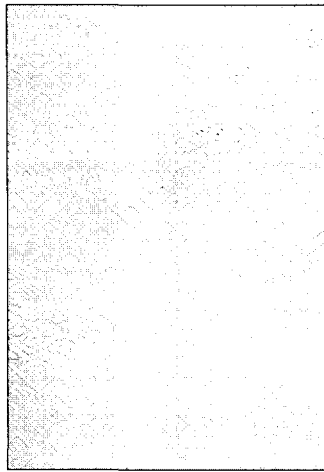
<그림 2> 百蝶

출처: 『中國歷代織染繡圖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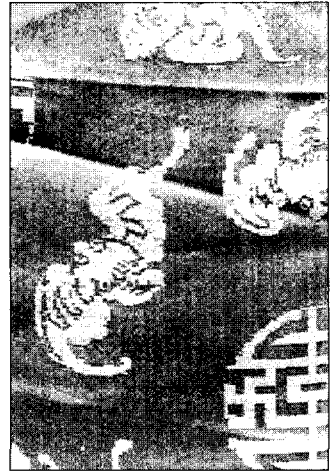
접문은 『의덕불기』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숙접문사·숙접문갑사와 같이 단독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주로 수접문사·인접문사·인접문갑사, 백접문사·백접문갑사·백접문생수갑사, 화접문숙사와 같이 壽字·鱗紋·花紋 등과의 복합문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접’이라는 글자가 『의덕불기』에는 대부분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글자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문양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접’을 나비를 뜻하는 ‘蝶’으로 보아 ‘접문’을 ‘나비문’



<그림 3> 樸紋  
조선 후기 안동김씨묘 출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4>衿字문 바탕  
영친왕비 당코겹저고리  
출처: 『朝鮮朝後期 宮中服飾』



<그림 5> 壽蝠紋  
영친왕비 직금대란치마의 끈  
출처: 『朝鮮朝後期 宮中服飾』

으로만 보아왔다. 그러나 나비문이 유물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문양이기는 하나, 『불기』에 기록된 만큼 많은 정도는 아니며, 『의디불기』 일부부분에는 ‘창문’을 뜻하는 ‘樸’이라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접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접문을 두 가지 문양으로 분류하였다. 첫번째는 백접문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비문[蝶紋]이다. 두번째는 조선시대 유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3>의 바탕 문양에 해당하는 창살문[樸紋]이다. <그림 3>의 바탕 문양은 조선시대 유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일 뿐만 아니라 현대 전통직물에도 꾸준히 애용되고 있으나 공식화된 명칭이 없었다. 이러한 문양을 학계에서는 중국과 동일하게 ‘衿字문’으로, 업계에서는 구전되어 온 대로 ‘완자문’ 또는 ‘방과 방, 방과 마루 사이에 있는 미닫이문’이라는 뜻의 ‘장지문[障子紋]’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장지문[障子紋]’이라는 용어는 조선 말기의 문헌에 기록된 예가 없고, ‘완자문’이라는 용어는 『불기』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극히 적은 수이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은 문양은 우리 문헌인 『불기』의 기록에 따라 ‘樸紋’이라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림 4>와 같이 ‘衿字’가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만을 ‘衿字紋’으로 명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수복문은 『의디불기』에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壽字’와 ‘福字’가 혼합된 ‘壽福紋’ 또는 ‘壽字’와 ‘박쥐[蝠]’가 혼합된 ‘壽蝠紋’이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림 5>는 영친왕비의 직금대란치마의 허리끈에 사용된緞인데 원형의 ‘壽’와 ‘박쥐’ 문양이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이 유물은 ‘壽蝠紋’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며, 『불기』에 기록된 수복문이 이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수복문을 이용한 직물로 『불기』에는 수복문사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치마에 사용되었다. 한편 향후 ‘壽’자와 ‘福’자가 함께 배열된 유물이 있다면 이는 ‘壽福紋’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접문도 『의디불기』에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수복문과 마찬가지로 ‘壽字’와 ‘나비[蝶]’가 혼합된 문양이었을 가능성과 ‘壽字’와 ‘창살문[樸紋]’이 혼합된 문양이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접문의 경우는 『의디불기』에 수접문사가 바지·치마 등의 하의에 사용되었다.

구름이 표현된 운문의 경우 『의디불기』에서 운문사·숙운문사·생운문사·운문갑사·생운문갑사·숙운문갑사 등 운문만으로 된 것은 대부분 용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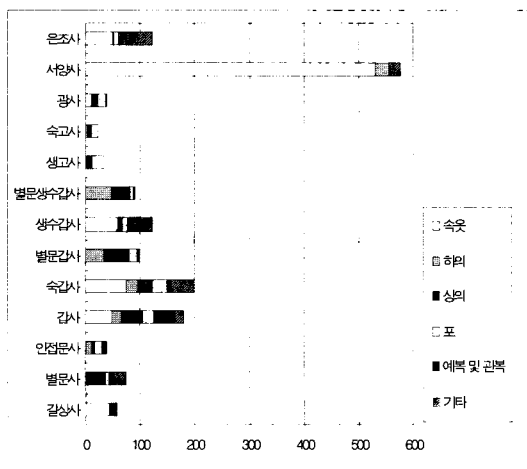
포안갑 등 남성용 최상급 예복에 사용되었다. 한편 운학문사·운학용봉문사·운학문갑사·운학용봉문갑사·운학용봉문생수갑사 등 운문에 다른 문양이 혼합되어진 것들은 『의디불기』에서 쾌자·철릭·창의·군복 등의 남성용 복식뿐만 아니라 치마·저고리류·전행옷치마 등의 여성용 복식에도 사용되었다.

별문은 『의디불기』에서 별문사·별문숙사·별문갑사·별문숙갑사·별문생수갑사·별문관사·별문라사·별문저우사 등 다양한 종류의 紗에 사용되었으며, 별문단·별문고단·별문모본단·별문복자단·별문완자단 등 緞 종류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디불기』를 분석해 보면 별문은 용도면에서도 속옷·하의·상의·포·예복 및 관복 등 다양한 용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문양이다. 별문은 김영숙이 영친왕가 유물을 정리한 『朝鮮朝後期宮中服飾』에서 1932년(昭和 7)년 『의디목록』의 ‘별문단부금복건’이라는 기록과 圓形의 雙龍紋이 있는 부금복건 유물을 연관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圓形의 雙龍紋’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2)</sup>. 그러나 그 명칭에 대한 정확한 유래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확인해야 될 과제로 생각된다.

### 3) 紗의 용도

『의디불기』에 기록된 紗의 명칭과 용도 및 수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紗를 명칭에 따라 구분한 후, 각각을 다시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수량의 합계를 산출하였다<sup>23)</sup>. 먼저 『의디불기』에 기록된 80여 종의 紗 중 빈도 및 수량이 높아 대표적인 종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그림 6>과 같이 서양사> 숙갑사> 갑사> 은조사> 생수갑사> 별문갑사> 별문생수갑사> 별문사> 길상사> 왜사> 광사> 인접문사> 생고사> 여의사> 숙고사 등으로 서양사와 갑사류의 비중이 높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서양사와 숙갑사는 속옷의 비중이 전체 수량의 92%에서 38%나 되는데 이 점이 기록빈도 및 수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양사의 경우는 기록빈도 자체는 적은 편이나, 임오년 순종 가례 때에 소용된 속바지와 단니의로 각각 400건과 100건이 기록되어 전체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속옷에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인 서양사·숙갑사·갑사 3종류를 제외하고 본다면 별문갑사·별문사·별문생수갑사 등 별문을 사용한 紗 종류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 6> 『의디불기』에 기록된 紗의 용도

한편 극히 적게 기록되고 있는 종류는 인화문사(소고의1), 유문갑사(배자1), 칠보소룡문숙갑사(겹치마1), 지미생수갑사(군복1) 등이다.

의복종류에 따른 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속바지·너른바지·단니의 등 속옷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서양사> 숙갑사> 생수갑사> 은조사> 갑사> 길상사 등이다. 반면 별문갑사·별문생수갑사·생고사·숙고사 등은 속옷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겉옷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비교적 고급 직물이었을 것이다.

치마·바지 등 하의용으로는 별문생수갑사> 별문갑사> 서양사> 저우사> 숙갑사> 갑사> 공양사> 별문숙갑사·인접문사> 운학문사·칠보문사 등 상의류와 마찬가지로 갑사류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별문뿐만 아니라 운학문·인접문 등 상의류보다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었다.

소고의·동의대·배자·당고의 등 상의용으로는 별문갑사> 갑사> 별문사> 별문생수갑사> 숙갑사> 길상사 등 주로 갑사류를 사용하였고, 특히 문직물의 경우는 별문이 많았다.

쾌자·주의·동다리·중치막·직령·창의·학창의·도포 등 포류에는 숙갑사> 생고사> 갑사> 광

사> 순인문사[순인·인문사]> 별문갑사> 인접문사> 숙고사 등이 사용되었다. 포류에 사용된 紗 중에는 현재 전통 搥織物을 대표하는 종류로 여겨지고 있는 숙고사와 생고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옷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상의·하의와 함께 포류에는 많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겉옷인 포에 주로 사용된 숙고사·생고사는 당시 고급 紗였음을 알 수 있다.

예복 및 관복류를 살펴보면 면복에는 인접문사·숙갑사가, 면복안감에는 갑사가 사용되었다. 용포에는 생운문사·숙갑사·운문갑사, 생운문갑사·숙운문갑사·궁사·운문궁사가, 용포안감에는 운문갑사·생운문갑사·숙운문갑사·궁사·운문궁사 등이 사용되었다. 또 강사포에는 인접문사·갑사·숙갑사가, 강사포안감에는 갑사가 사용되었다. 면복과 강사포의 밑받침으로 사용된 청삼에는 인접문사·갑사·숙갑사가 사용되었다. 한편 여성의 예복인 원삼에는 사·화문사 등이, 원삼안감에는 별문사·운문숙사 등이 사용되었다. 장삼과 장삼내작에는 별문갑사·궁사가 사용되었고, 그밖에 폐슬에는 갑사가, 옷치마에는 사·별문사·궁사·운문궁사, 전행옷치마에는 운학용봉문갑사·별문생수갑사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궁사·운문궁사 등의 궁사류는 예복에만 사용되어 당시 최상급 紗였음을 알 수 있으며, 남성 예복에는 대부분 운문만을 사용하였지만, 여성 예복에는 화문·별문·용봉문·운문 등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羅

### 1) 羅의 종류와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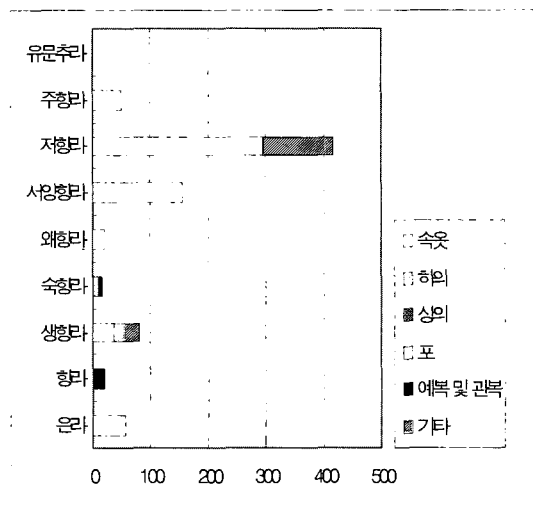
『의디불기』와 『度支準折』에 기록된 羅는 모라·윤주라·은라·추라·유문추라·항라·생항라·숙항라·저항라·주항라·서양항라·왜항라 등 12종이다. 이는 80여 종이나 되는 紗에 비하여 매우 적은 종류인데, 이러한 결과는 고려시대까지 다양했던 羅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sup>24)</sup>.

이처럼 羅는 종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문추라 이외에는 문양에 따라 세분화된 명칭도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물에는 크고 작은 문양이 있는 항라류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의디불기』의 분석 결과와 대조적이다.

### 2) 羅의 용도

『의디불기』의 분석을 통하여 12종의 羅를 사용빈도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그림 7>에서와 같이 저항라> 서양항라> 생항라> 은라> 주항라> 항라> 왜항라> 숙항라> 유문추라 순이다.



<그림 7> 『의디불기』에 기록된 羅의 용도

용도면에서도 紗가 속옷·안감·상의·하의·포류·예복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羅는 대부분 속옷류에 편중되어 사용되었다. 특히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저항라는 총 수량의 70% 이상이 고의·단속것·속바지·한삼·단니의 등의 속옷에 사용되었고, 서양항라·은라·주항라·왜항라도 모두 속옷에 사용되었다. 반면 항라와 숙항라는 속옷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치마·주의·옷치마 등에 사용되어, 羅 중에서 비교적 상등 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유문추라는 소고의에 3건 사용되었다.

#### IV. 조선 말기 紗·羅 직물의 종류별 특징

조선 말기 문헌에는 수많은 紗·羅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록빈도 수가 높고 구체적 인 언급이 있어 현 상황에서 특성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물만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1. 紗

###### 1) 견직물의 紗

甲紗는 세 올로 된 平織과 撚織을 전후좌우 교대로 배열하여 직조하므로 위사가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들어간다. 따라서 바탕에 바둑판과 같은 문양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언뜻 보면 마치 물고기 비늘 느낌이 난다(그림 8). 無紋의 甲紗는 일반적으로 純仁이라고 하며, 인문사·순인문사라고도 하였다. 『불괴』의 기록에 따르면 문양에 따라 백복문갑사·백접문갑사·별문갑사·운문갑사·운학문갑사·운학용봉문갑사·인접문갑사·절문갑사·칠보문갑사·화학문갑사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용도면에서도 속바지·남성의 바지·치마·소고의·동의대·배자·주의·강사포와 면복의 안감·폐슬 등 가장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었던 직물이다.

庫紗는 清代 궁중 수요를 위하여 조정의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것이라는 뜻이다<sup>26)</sup>. 平織과 紗織이 조합된 직물인데, 바탕은 平織, 무늬는 撚織이면서 熟絲를 사용한 것은 熟庫紗, 바탕이 撚織, 무늬가 平織이면서 生絲를 사용한 것은 生庫紗라고 한다. 『불괴』에는 문양에 따라 인접문고사·생고사·별문생고사·숙고사·별문숙고사 등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전통직물 중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는 숙고사와 생고사의 문양은 원형의 壽字와 卍字가 들어있는 호룡박이 배열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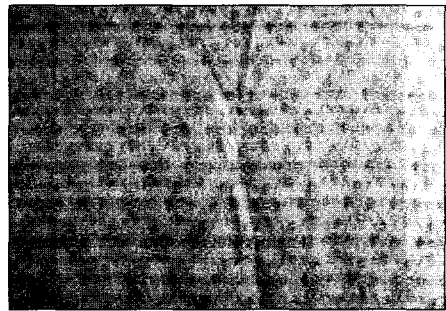
官紗는 중국 杭州·紹興 일대의 특산 견직물의 일종으로 조직이 세밀하고 가벼워 여름 옷감으로 적합하였으며, 예로부터 이를 궁정에 헌납하였기 때문에 官紗라고 불렀다<sup>26)</sup>. 『漢語大辭典』에 따르면 경사는 生絲, 위사는 熟絲를 사용하였으며, 『朝鮮集報』에 따

르면 官紗에는 生官紗·熟官紗가 있었는데 보통 그냥 官紗라고 하면 대개 熟官紗를 의미하였으며, 경·위사 모두 生絲를 사용한 官紗는 生官紗라고 하였다. 각각 有紋과 無紋이 있었다. 명칭에는 ‘紗’라는 글자가 붙었지만, 撚織이 아니고 平織 바탕에 綾織 문양이 있으며, 吉祥紋이 있는 官紗는 吉祥紗, 如意紋이 있는 官紗는 如意紗라고 하였다. 『의디불괴』에는 별문관사·진주관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9).



<그림 8> 甲紗

출처: 『朝鮮朝末期 宮中服飾』



<그림 9> 官紗

경운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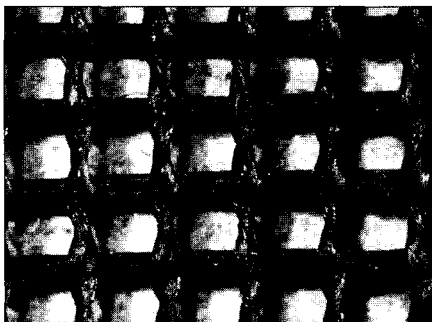
走紗는 1819년(순조 19) 정약용이 국민의 언어·문자생활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저술한 『雅言覺非』에 ‘縐紗’가 잘못 옮겨져 ‘走紗’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縐紗와 동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또 『才物譜』에는 ‘走紗’가 ‘注雨紗’와 동일한 것이라 하였으며, 『譯語類解』에 ‘卽于紗’와 ‘縐紗’가 동일한 것이라 하였으므로<sup>28)</sup> 走紗·注雨紗·卽于紗·縐紗는 모두 같은 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集報』에는 走紗가 純絹 縮緬이라고 하였다. 縐紗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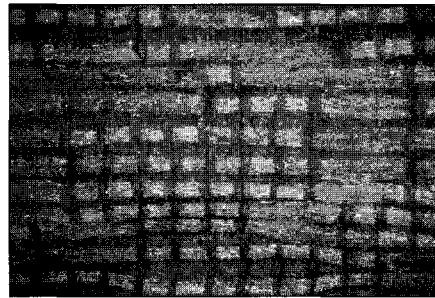
명칭에 ‘紗’라는 글자가 들어 있으나 실제 조직은 두 올의 경사가 교차된 紗織이 아니라 平織이었다. 縹紗는 平織의 직물 중에 표면에 오글오글한 주름 효과가 있는 직물을 말하는데, 경사에 無撚絲나 弱撚絲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Z연과 S연의 強撚絲를 번갈아 사용하여 平織으로 제직한 후 정련을 하면, 실이 수축되면서 오그라짐에 따라 직물표면에 미세하고 불균일한 무늬가 생겨 직물표면이 오글오글하여진다<sup>29)</sup>. 『의디불기』에 저우사·유문즈우사·별문즈우사·운복문즈우사 등의 기록이 있어 문양이 있는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은조사는 <그림 10>과 같이 경사가 교차된 2經絞의 撚織物이다. 銀絲紗라고도 하는데, 가볍고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늘어뜨린 모양이 늘어진 垂絲와 같은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sup>30)</sup>. 문양이 없는 백색의 얇고 가벼운 고급 직물로 여름옷, 장막에 많이 사용되었으<sup>31)</sup>, 촉감이 까슬까슬하고 뽀뽀하며 비쳐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의디불기』에서는 속옷(속바지·너른바지·단니의), 상의(소고의), 포(쾌자·주의·도포)와 帶 등에 사용되었다.

廣紗는 2經絞의 撚織物로 비쳐 보이는 외관이 언뜻 보기에는 은조사와 비슷하지만 <그림 11>과 같이 위사에 경사보다 매우 굵은 無撚絲를 사용함으로 써 은조사보다 광택이 좋다. 민간에서는 생수라고도 말하였으며<sup>32)</sup>, 작은 꽃무늬 등의 문양이 있는 것도 있다. 廣紗는 『의디불기』에서는 속옷(단니의), 상의(동의대·동의복), 포(쾌자·주의·동다리·학창의) 등에 사용되었다.



<그림 10> 은조사 15배 조직사진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11> 광사 15배 조직사진  
경운박물관 소장

倭紗는 1951년에 간행된 일본의 『纖維辭典』에 의하면 朝鮮向織物의 일종으로 경·위사에 生絲를 사용한 絹이다<sup>33)</sup>. 『纖維辭典』에 따르면 폭 15inch[≒38.1cm], 길이 25yd[≒2286cm]으로 직조하였고, 남녀 여름용 상의[上着]와 바지안감용으로 사용되었다<sup>34)</sup>. 또 『朝鮮彙報』에는 倭紗는 실이 좋은 絹이며 高崎絹과 같이 실이 가늘고 얇은 平織 生絹으로 紬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워 소비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헌들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倭紗는 경·위사에 실이 가늘고 얇은 生絲를 사용하여 平織으로 직조한 고급 견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디불기』에 속바지 등의 속옷과 저고리·주의·옷무족치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2) 견직물 이외의 紗

일반적으로 紗는 견직물을 뜻하나 조선 말기에는 명칭에 紗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도 견직물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 예로 도리사, 공양사, 라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전통 紗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명칭 때문에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징을 정리하였다.

먼저 도리사는 ‘도류사’와 발음이 유사하여 자칫 ‘도류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석주선에 따르면 경사는 명주, 위사는 모시실로 직조한 천이며<sup>35)</sup>, 『朝鮮彙報』에는 마직물로 道理麻의 얇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두 기록을 볼 때 도리사는 絹과 苧를 교직으로 직조하였거나 麻를 재료로 직조한 직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조직적 특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의디불기』에서 도류사[도류문사]는 藍色·藍松色·양초록색의 배

자·군복 등 의외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비하여 도리사는 색의 언급 없이 素色으로 사용되며 용도도 고의로만 사용되고 있어 도류사와는 다른 직물이었던 것 같다.

공양사는 석주선의 경우 울이 가늘면서 뽀뽀한 綿으로 양사와 같다고 하였고<sup>36)</sup>, 김용숙은 오늘날 목아사 같이 비단처럼 고운 면직물 종류라고 하였다<sup>37)</sup>. 『朝鮮彙報』에 따르면 洋紗는 영국산 직물로 寒冷紗라고 하였는데, 일본의 『纖維辭典』에 따르면 寒冷紗는 平織의 얇은 면포로 강한 풀을 먹인 것인데, 경·위사 모두 40번수를 사용하여 밀도가 낮고, 제직 후에 표백하였으며 폭은 36-48inch 정도까지 있다고 한다<sup>38)</sup>. 이러한 문헌들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공양사는 명칭에 ‘사’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나 경사가 꼬인 撚織의 견직물인 紗 종류는 아니었고, 울이 가늘면서도 풀을 강하게 먹여 뽀뽀한 질감을 가진 얇은 平織의 면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디볼기』에는 양사가 속바지의 안감·한삼·고의·저고리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羅紗는 명칭으로 보아 撚織의 견직물인 紗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1951년에 간행된 일본의 『纖維辭典』에 따르면 紡毛織物의 일종으로, 명칭의 기원은 포르투갈어의 Raxa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慶長(1596-1614년) 시기에 京都에서 수입품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明治10년 東京의 午住에 官營의 紡毛工場(후의 午住製絨所)가 설립되어 그 후에 民營工場을 설립하고 昭和 초기부터 생산이 급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羅紗는 경·위사에 紡毛絲를 사용하여 起毛시킨 두꺼운 방모직물의 총칭인데, 때로는 경사에 소모사를 사용한 것도 있다. 제직 후에 축융·기모 및 블러싱(brushing)의 각 공정을 완성하기 때문에 경·위사의 조직이 직물표면의 毛羽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조직은 平織·綾織·縐子織·二重織 등이 있고, 색은 黑色·紺色이 많은데, 희끗희끗한 무늬[霜降, しもふり] 등의 무늬 있는 옷감[柄物, がらもの]도 있다<sup>39)</sup>. 『의디볼기』에 배자·주의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대에 두루마기를 모직물로 만들어 입는 것이 여기서부터 연유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羅

閩州羅(潤州羅)는 현재 연구된 바로는 宋代 羅의 명칭<sup>40)</sup>에 처음 보인다. 따라서 閩州羅는 중국 宋代에 潤州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羅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尙方定例』에는 ‘潤州羅’로 기록되어 있으며, 너울의 재료로 사용되었다<sup>41)</sup>. 현재까지 출토된 조선시대 너울은 경기도박물관과 고대박물관에 각각 1점씩 소장되어 있는데, 이 2점의 너울은 모두 4經紋의 撚織物로 만들어졌으므로 윤주라는 4經紋의 撚織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銀羅는 『朝鮮彙報』에 의하면 銀羅紗[銀羅緞]의 略稱이며, 경사는 청색, 위사는 백색의 羅官紗로 灰羅官紗라고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이외의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특징은 알 수 없다.

항라는 재료나 원산지에 따라 저항라·당항라·양항라·왜항라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저항라는 석주선의 경우 모시실로 직조한 항라라고 하였으며<sup>42)</sup>, 『朝鮮彙報』에서는 生苧亢羅가 中國麻[china grass]로 짠 絹, 즉 麻絹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볼 때 저항라는 絹絲가 아닌 麻絲나 紵絲를 재료로 하여 항라 조직으로 직조한 직물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한편 唐亢羅는 『朝鮮彙報』에 中國産의 絹로, 韓國産에 비하여 糸條가 精良하고 色이 희어서 韓國産이라도 上等品은 唐亢羅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洋亢羅는 영국산으로 寒冷紗風의 絹, 즉 풀기가 많은 棉絹라고 하였다. 그밖에 ‘왜’라는 글자를 볼 때 일본산 항랄일 가능성이 있는 왜항라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자료의 한계로 구체적인 특성은 알 수 없다.

秋羅는 明·清 시기에 유행하였고, 중국 浙江 지방에서 생산되었던 것이 고급품으로 귀족의 복식에 애용되었다<sup>43)</sup>. 『衣冠大辭典』에는 秋羅가 가로로 그물눈이 뚜렷이 나타나는 견직물로, 직조할 때 북을 두 번은 평직으로 짜고 한 번은 비틀어 꼬아 그물 구멍을 형성하며, 매끄럽고 시원하며 통기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sup>44)</sup>.

## V. 조선 말기 紗·羅의 길이 및 폭과 가치

『度支準折』에는 각 직물의 1疋 길이 및 폭과 가치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주로 평견직물 위주이며 紗와 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다. 『度支準折』에서 사용된 布帛尺은 47cm로, 이 수치는 雜錄에 나와 있는 실제크기의 자에서 산출되었다<sup>45)</sup>. 한편 『度支準折』에서 직물의 가격은 대개 米·木·錢을 기본적인 교환수단으로 기재하였으나 고급품의 경우는 銀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折價를 함께 표시한 경우도 있다<sup>46)</sup>.

尺3寸[61.1cm]으로, <표 1>에서 정리한 것처럼 合絲紬·大綬·賞賜綬와 그 폭이 동일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인 紗는 『度支準折』의 기록 중 폭이 최대인 西洋紋紬(1尺8寸[84.6cm])를 제외하고는 당시 가장 넓은 폭으로 생산되었던 직물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走紗의 폭은 8寸[37.6cm]으로, 평견직물 중 改只紬·花方紬·花紗紬·花禾紬와 그 폭이 동일하였다. 이처럼 走紗의 폭이 平絹織物과 유사한 것은 명칭에는 紗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나 실제 조직은 앞 단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平織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疋의 길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廣紗 1종류뿐인데, 廣紗 1疋의 길이는 30尺[1410cm]으로 綃·羅와

<표 1> 紬·綃·絹과 綾·紗·羅·綬의 길이와 폭

직물유형	직물명	길이 (단위: 1疋)		폭	
		尺	cm	尺·寸	cm
紬	그룹 紬·上紬·中紬·水紬·鼎紬 倭人禮單綿紬·勅使禮單綿紬	35	1645	7寸	32.9
	B 貞紬·綿紬·經用綿紬	40	1880	7寸	32.9
	吐紬	50	2350	7寸	32.9
	그룹 改只紬·花方紬·花紗紬·花禾紬	-	-	8寸	37.6
	潞方紬	22	1034	-	≒ 39-42
	潞州紬	-	-	9寸	42.3
	A 方絲紬	16	752	1尺	47.0
	經光紬	-	-	1尺	47.0
	合絲紬	-	-	1尺3寸	61.1
	西洋紋紬	-	-	1尺8寸	84.6
綃	十兩紬	19	893	-	-
	綃	-	-	1尺1寸	51.7
絹	熟絹·別紋庫英絹	30	1410	-	-
綾	通綾	-	-	1尺	47.0
紗	小綾	-	-	7寸	32.9
	大綾	-	-	1尺1寸	51.7
紗	紗	-	-	1尺3寸	61.1
	廣紗	30	1410	-	-
	走紗	-	-	8寸	37.6
羅	冒羅	-	-	6寸	28.2
	杭羅	30	1410	-	-
綬	羽綬	-	-	1尺	47
	冒綬·縹綬·禾綬	-	-	1尺2寸	56.4
	大綬·賞賜綬	-	-	1尺3寸	61.1

### 1. 紗

紗 종류 중 직물의 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紗와 走紗 2종류뿐이다. 일반적인 紗의 폭은 1

동일하였다.

『度支準折』에서 紗의 가치는 國良·諸良·郎良 등의 단위로 기록되었다. 『度支準折』에서 고급품의 가격은 銀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銀을 통속

<표 2> 紬・絹・絹과 紗의 10000cm<sup>2</sup>당 가치 비교

		紬							絹	絹	紗	
		그룹 A					그룹 B					
		合絲紬	潯州紬	經光紬	花禾紬	方絲紬	吐紬	綿紬 水紬 鼎紬	紬	絹	通絹	紗
폭(cm)		61.1	42.3	47.0	37.6	47.0	32.9	32.9	32.9	51.7	47.0	61.1
1尺 길이(cm)		47	47	47	47	47	47	47	47	47	47	47
폭×길이 (cm)		2871.70	1988.10	2209.00	1767.20	2209.00	1546.30	1546.30	1546.30	2429.90	2209.00	2871.70
藍色 1尺 가치	國良	8匁	2匁	2匁	1匁6分	1匁6分	-	-	-	-	2匁5分	8匁
	諸良	8匁	2匁	2匁	1匁3分	1匁5分	-	-	= 3分 9里2戸 (錢2匁 4分5里)	1匁3分	-	6匁5分
藍色 10000cm <sup>2</sup> 가치 (諸良)		약 2兩7匁 8分5里	약 1兩5里	약 9匁5里	약 7匁 3分5里	약 6匁 7分9里	-	-	약 2匁 5分3里	약 5匁 3分5里	國良 약 1兩1匁 3分1里	약 2兩2匁 6分3里
草綠 1尺 가치	國良	-	2匁3分	-	1匁6分	1匁5分	-	-	-	-	-	8匁
	諸良	-	2匁	2匁	1匁3分	1匁5分	≒ 7分4里 (錢4匁 6分2里8戸)	-	-	1匁3分	-	7匁
草綠 10000cm <sup>2</sup> 가치 (諸良)		-	약 1兩5里	약 9匁5里	약 7匁 3分5里	약 6匁 7分9里	약 4匁7分8里	-	-	약 5匁 3分5里	-	약 2兩4匁 3分7里

<표 3> 紬・絹・紗의 10000cm<sup>2</sup>당 가치

	紬	絹	紗	走紗	縹緞	大緞
폭(cm)	32.9	51.7	61.1	37.6	56.4	61.1
1尺 길이(cm)	47	47	47	47	47	47
폭×길이(cm <sup>2</sup> )	1546.30	2429.90	2871.70	1767.20	2650.80	2871.70
白色 1尺 가치	國良	-	1匁3分5里	6匁5分	-	9匁
	諸良	≈ 3分6里4里 (錢2匁2分8里)	1匁3分	6匁	2匁2分	9匁
白色 10000cm <sup>2</sup> 가치(諸良)	약 2匁3分5里	약 5匁3分5里	약 2兩8分9里	약 1兩2匁4分4里	-	약 3兩1匁3分4里
藍色 1尺 가치	國良	-	8匁	-	-	1兩
	諸良	= 3分9里2戸 (錢2匁4分5里)	1匁3分	6匁5分	7匁	9匁
藍色 10000cm <sup>2</sup> 가치(諸良)	약 2匁5分3里	약 5匁3分5里	약 2兩2匁6分3里	-	약 2兩6匁4分	약 3兩1匁3分4里
黑色 1尺 가치	國良	-	-	-	-	-
	諸良	= 3分9里2戸 (錢2匁4分5里)	1匁4分	7匁	-	-
黑色 10000cm <sup>2</sup> 가치(諸良)	약 2匁5分3里	약 5匁7分6里	약 2兩4匁3分7里	-	-	-

적으로 이르는 良<sup>47)</sup>으로 가치를 나타낸 紗는 비교적  
고급직물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가치비교를 위하여 <표 2>에

서 藍色을 기준으로 10000cm<sup>2</sup>당 가치를 평견직물과비  
교하여 보아도 紗의 가치는 평견직물 중에서 최고가  
인 合絲紬(약 諸良2兩7匁8分5里)보다는 조금 낮은

약 諸良2兩2錢6分3里이지만, 비교적 고급 평견직물인 潞州紬(諸良1兩5分)와 通絹(1兩1錢3分1里)보다는 2배정도 높아 고가의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폭이 기록되어 있는 직물 중 같은 색간의 가치비교가 가능한 紬・絹・縐緞・大緞을 紗와 비교하여 보면 10000cm<sup>2</sup>당 가치가 白色을 기준으로 大緞 > 紗 > 走紗 > 絹 > 紬의 순이며, 藍色을 기준으로 大緞 > 縐緞 > 紗 > 絹 > 紬 순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보면 紗는 大緞・縐緞 다음으로 고가의 직물인데, 여기서 大緞과 縐緞은 두꺼운 주자직물이므로 직조하는데 필요한 원사의 양이 다른 종류의 직물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을 것이므로 고가였던 것은 당연하지만 紗의 경우는 비교적 얇은 직물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紗가 원사가 적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고가였던 것은 당시로서는 경사가 교차되도록 縐組織을 직조하는 것이 까다로운 공정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走紗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명칭에는 '紗'라는 글자가 있으나 실제조직은 평직이므로 경사가 교차된 紗보다는 가치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羅

羅 중에서 1尺의 길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향라(30尺[1410cm])뿐이며, 폭에 대한 기록도 冒羅가 6寸[28.2cm]이었다는 것 한 가지뿐이다.

羅의 가치는 紗와 마찬가지로 尺으로 표기하였으므로 비교적 고급직물이었을 것이다. 羅 종류 중 비교적 빈번히 사용되었던 향라의 경우는 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가치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색상에 따라 諸良4錢5分(白)에서 6錢5分(眞紅・紫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冒羅의 가치는 國良3錢, 諸良2錢5分으로 冒羅의 가치를 冒緞과 비교하여 보면 10000cm<sup>2</sup>당 가치가 冒羅는 약 諸良1兩8錢8分6里, 冒緞은 약 諸良3兩7錢7分2里이었다. 冒羅의 경우는 다른 직물과는 달리 색에 대한 기록이 없는 데, 일반적으로 출토유물에서 관모류에 사용되는 鴉青色 등 黑色과 유사한 짙은 색상의 緞을 문헌에 기록과 연결하여 冒緞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볼 때, 冒羅도 관모류에 사용되었던 黑色 계통의 짙은 색 羅였을 것이다. 따라서 冒羅의 10000cm<sup>2</sup> 당 가치를 藍色・黑色 등 유사한 계열의 짙은 색의 다른 직물과 비교하면 紗(≒2兩4錢3分7里) > 冒羅(≒1兩8錢8分6里) > 絹(≒5錢7分6里) > 紬(≒2錢5分3里)의 순이다. 그런데 羅의 종류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향라로 생각되지만 향라는 폭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가치비교가 불가능하므로 冒羅의 10000cm<sup>2</sup>당 가치가 紗보다 낮다는 결과를 가지고 紗의 가치가 羅의 가치보다 높았다고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紗와 羅의 정확한 가치비교는 불가능하다.

## VI. 결 론

조선 말기의 문헌들에는 많은 종류의 紗・羅가 기록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록된 빈도 수가 높고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 현 시점에서 특성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를 규명하였다.

1. 紗・羅의 명칭을 정리해보면 『의덕보』 및 『度支準折』에 기록된 紗는 80여 종, 羅는 12여 종으로 紗의 종류가 羅에 비하여 월등히 많아 고려시대까지는 紗보다 羅가 널리 사용되었던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문양면에서도 紗는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길상문, 기하학문 등 20여 종이 사용되었으나, 羅는 유문추라 이외에는 특별한 문양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2. 紗에 사용된 여러 가지 문양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것들은 다음과 같다. 백복문은 '百蝠紋' 즉 '박쥐[蝙蝠]'가 가득 찬 문양이며, 백점문은 '百蝶紋' 즉 '나비'가 가득 찬 문양이다. 점문은 지금까지 '점'을 나비를 뜻하는 '蝶'으로 보아 '나비문'으로 보아왔으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비문[蝶紋]과 창살문[櫺紋]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수복문은 '壽字'와 '福字'가 혼합된 '壽福紋'과 '壽字'와 '박쥐[蝠]'가 혼합된 '壽蝠紋'일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유물에 '壽字'와 '박쥐'가 혼합된 형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壽蝠紋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운문의 경우 운문 단독으로만 된 것은 대부분 용포·용포안감 등 남성용 최상급 예복에 사용되었으며, 운문에 다른 문양이 혼합되어진 것들은 패자·철릭 등의 남성용 복식뿐만 아니라 치마·저고리·전행웃치마 등의 여성용 복식에도 사용되었다. 별문은 가장 많은 종류의 紗에 사용되었으며, 용도면에서도 속옷·하의·상의·포류·예복 및 관복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3. 紗·羅의 용도를 살펴보면 紗는 종류와 문양에 따라 속옷·하의·상의·포·예복 및 관복 등 다양한 용도로 세분화되어 사용되었으나, 羅는 향라와 속향라가 일부 예복 및 관복류로 사용되었을 뿐 대부분 속옷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紗의 종류에 따른 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紗는 甲紗류이다. 반면 현재 가장 보편적인 전통 직물의 종류로 생각되고 있는 熟庫紗·生庫紗 등의 庫紗류는 수량은 갑사류에 비해 현격히 적었으며, 속옷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상의·하의·포 등의 겉옷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을 볼 때 비교적 고급 紗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운문갑사 등의 갑사류는 용포·폐슬 등의 예복 및 관복류에만 사용되어 최고급 紗였음을 알 수 있다.

4. 『의디불기』 및 『度支準折』에 기록된 조선 말기 80여 종의 紗 중 본 논문에서 규명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搥織의 紗는 廣紗·은조사, 搥織과 平織이 조합된 紗는 甲紗·純仁·庫紗, 平織의 紗는 官紗·走紗[注雨紗·卽于紗·縐紗]·倭紗가 있었다. 그밖에 견직물이 아니었던 紗에는 도리사, 공양사, 라사 등이 있었다.

한편 羅는 12여 종으로, 본 논문에서 규명한 것은 윤주라, 은라, 저항라, 당향라, 양향라, 추라 등이다.

5. 紗·羅의 가치를 살펴보면 紗·羅는 良 즉 銀으로 가치를 표기한 고급직물이었으며, 1疋길이와 폭은 평견직물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10000cm<sup>2</sup> 당 紗의 가치를 다른 종류의 직물과 비교하여 보면 緞 > 紗 > 絹의 순으로, 紗의 가치는 緞보다는 낮으나 絹·絹보다는 높았다. 한편 羅와 紗의 정확한 가치비교는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 참고문헌

- 1) 민길자 (2000). 羅·紗의 조직적 분류와 명명.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서울: 한림원, pp. 132-145.
- 2) 심연옥 (2001). 紗·羅직물의 제직기술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 19, pp. 5-45.
-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 운영위원회 編 (1994). 古文書集成 12.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서는 1987년 이왕실고문서 목록을 정하면서 제목에 나타난 것을 위주로 2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영인 과정에서 『의복불기』로 구분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종·순종·영친왕 등 의복의 착용자로 보았을 때 『의디불기』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4) 물품을 관장하는 관아 중 1882년(고종 19)까지 존속하였던 內資寺·司宰監·司圖署·瓦署·造紙署 등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1882년 이전에 발간된 것으로 생각된다.
- 5) 조효숙 (1993). 한국 견직물을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17.
- 6) 민길자 (2000). 앞의 책, p. 144.
- 7) 三國史記 권33, 雜誌2.
- 8) 高麗圖經 第7卷 冠服. 高麗王(중략)中朝人使至則紫羅公服象笏玉帶(하략).
- 9) 高麗圖經 第11卷 仗衛 1. 控鶴軍服紫文羅袍(하략). 高麗圖經 第12卷 仗衛 2. 官府門衛校尉服紫文羅窄衣(하략). 領兵上騎將軍服紫羅窄衣(하략).
- 10) 高麗圖經 第20卷 婦人. 貴婦(중략)皂羅蒙首製以三幅幅長八尺(하략). 庶民之家女子未嫁紅羅束髮(하략).
- 11) 高麗圖經 第12卷 仗衛 2. 龍虎上超軍服青布窄衣文羅頭巾(하략).
- 12) 高麗圖經 第19卷 民庶. 民長(중략)民中選富足者爲之(중략)其服文羅爲巾(하략).
- 13) 高麗圖經 第21卷 阜隸. 丁吏(중략)其常執事則文羅頭巾(하략).
- 14) 高麗史 제9권 세가9 문종3 문종 경신34년(1080).
- 15) 조효숙 (1993). 앞의 책, p. 115.
- 16) 위의 책, p. 115.
- 17) 林巳奈夫 編 (1976).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pp. 111-114.
- 18) 高漢玉 (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 上海: 科學技術出版社, p. 234, p. 242.
- 19) 石宙善 (1982). 續 韓國服飾史. 서울: 高麗書籍, p. 621.
- 20) 高漢玉 (1986). 앞의 책, p. 148.
- 21) 萬字百蝠漳緞. 萬字地紋, 黃色浮緯顯蝙蝠及壽桃紋
- 22) 李一秀 (1980). 조선조 공예에 나타난 박쥐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김혜경, 정성일 (2000).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cap 디자인 연구. 복식, 24(8), p. 112.
- 24) 石宙善(1982). 앞의 책, p. 622.
- 25) 高漢玉(1986). 앞의 책, p. 186.
- 26) 黃緞百蝶繡靠背 일부-品種各不相同的胡蝶百變.
- 27) 金英淑 (2002). 朝鮮朝後期 宮中服飾. 서울: 圖書出版

- 辛酉, p. 268.
- 23) 용도 및 수량 분석 시에 직물명은 기록되어 있으나 용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수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건으로 처리하였다.
- 24) 조효숙 (1993). 앞의 책, p. 115.
- 25) 羅竹風 主編 (1993). 漢語大辭典. 제3권.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p. 1232.
- 26) 羅竹風 主編 (1993). 앞의 책, p. 1389.
- 27) 金鍾權 譯註 (1976). 雅言覺非. 서울: 일지사, p. 150.
- 28) 亞細亞文化社 編 (1974). 앞의 책, p. 150.
- 29) 陳維稷 主編 (1984). 中國紡織科學技術史. 北京: 科學出版社, pp. 293-296.
- 30) 羅竹風 主編 (1993). 앞의 책, p. 487.
- 31) 위의 책, p. 487.
- 32) 김용숙 (2000). 朝鮮朝宮中風俗研究. 서울: 一志社, p. 345.
- 33) 纖維辭典刊行會 編 (1951). 纖維辭典. 東京: 商工會館出版部, p. 1377.
- 34) 위의 책, p. 1377.
- 35) 石宙善 (1982) 앞의 책, p. 614.
- 36) 위의 책, p. 606.
- 37) 김용숙 (2000). 앞의 책, p. 353.
- 38) 纖維辭典刊行會 編 (1951). 앞의 책, p. 192.
- 39) 위의 책, p. 1321.
- 40) 吳淑生, 田自秉 (1987). 中國染織史. 台北: 南天書局, p. 179.
- 41) 尙方定例, 권之.
- 42) 石宙善 (1982). 앞의 책, p. 640.
- 43) 羅竹風 (1993). 앞의 책, p. 493.
- 44) 위의 책, p. 493.
- 45) 度支部. 度支準折, p. 156.
- 46) 서울대학교규장각 (1995).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 史部2.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p. 138.
- 4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c). 한국한자어사전 3.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940.